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6. 03
Vol 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6 F. 055-713-7093 www.gnwff.or.kr

이인숙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경남 시군 가족센터 기관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1)]

01. 시군 가족센터 인력 현황 및 물리적 환경

02. 시군 가족센터 기본사업 추진 현황

03. 시군 가족센터 사업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됨. 이로써 보편적 가족정책과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근거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음
-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된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과 중복성 문제 등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면서 두 추진체계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었고, 2021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 경남은 2024년 광역가족센터 1개소가 통합·운영되고 있고, 2026년 현재 18개 시군에 가족센터가 20개소(창원지역에 창원, 마산, 진해센터 3개소)로 모두 2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시군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 외부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에 의하면 가족센터의 사업영역은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4가지로 각 사업영역별로 기본사업을 설정 설정하여 각 센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본고는 18개 시군의 가족센터 중 시지역 가족센터 9개소와 군지역 가족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가족센터의 인력 상황과 물리적 환경, 기본사업 추진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시군 가족센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

서면조사 개요

구분	조사 항목
대상 기관	경남 시군 가족센터 19개소
조사 대상	사업 추진 전반 총괄·관리자(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서면조사
조사 시점	2025년 4월 기준으로 서면조사 실시, 사업추진 실적은 2024년 기준임
조사 내용	센터 인력 기본현황, 물리적 환경 인식, 가족센터 기본사업 추진현황, 정책 수요 등

1) 본고는 2025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경남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본고는 2024년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창원시진해가족센터(2025년 5월 개소)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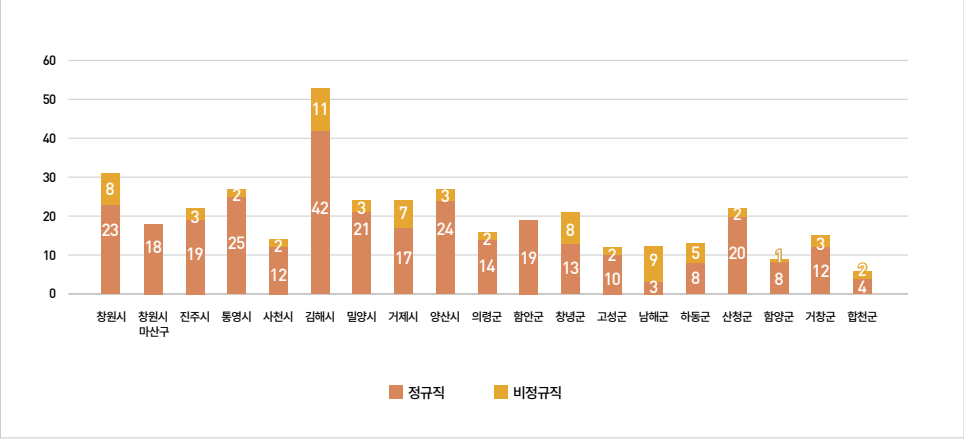
01. 경상남도 시·군 가족센터 인력 현황 및 물리적 환경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 고용 형태

- 9개 시군 가족센터의 종사자를 모두 합하면 385명으로, 시지역은 평균 26.7명, 군지역은 14.5명으로 시지역 중에서는 김해시가족센터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사천시가 14명으로 가장 적으며, 군지역 중에서는 산청군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합천군이 6명으로 가장 적음
- 시군 가족센터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16.4명, 비정규직은 평균 3.8명으로 시지역 정규직 종사자 평균은 22.3명이고, 군지역은 11.1명임.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시지역이 평균 4.3명이고, 군지역이 평균 3.4명임

(단위: 명)

그림 1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 고용 형태(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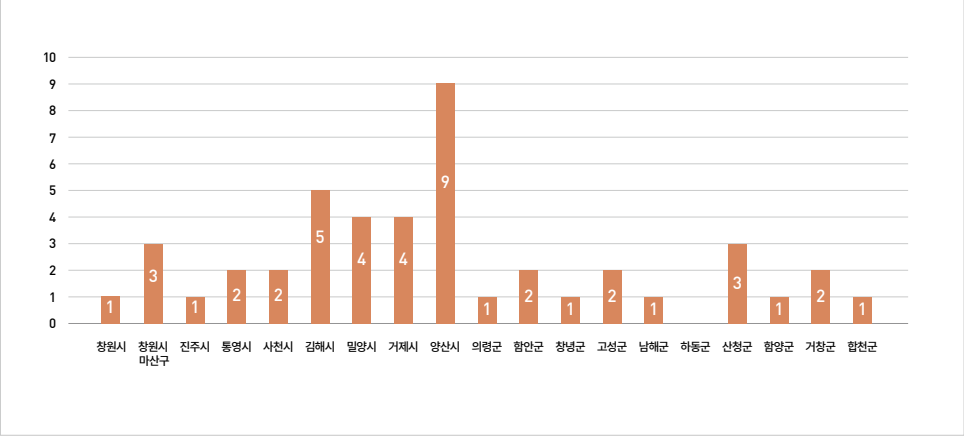
주: 고용 형태에서 비정규직은 대체인력, 사업기반 기간제 인력 등을 의미함

이주배경 종사자 수

- 시군 가족센터의 이주배경 종사자 수는 평균 2.4명으로 시지역 평균은 3.4명이며, 군지역 평균은 1.4명임
- 이주배경 종사자 수는 시지역 중에서는 양산시가 9명으로 가장 많고, 군지역 중에서는 산청군이 3명으로 가장 많고, 하동군은 이주배경 종사자가 없음

(단위: 명)

그림 2 이주배경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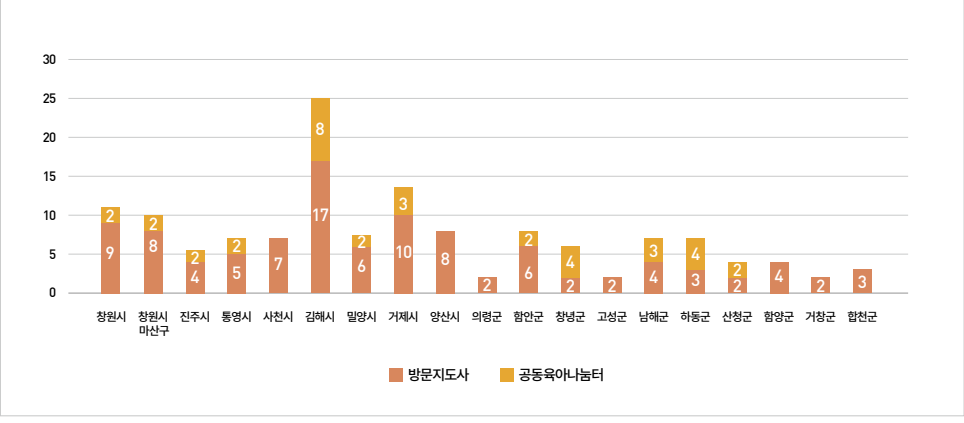
주: 고용 형태에서 비정규직은 대체인력, 사업기반 기간제 인력 등을 의미함

별도사업 종사자 수

- 시군 가족센터 별도사업 중 방문지도사 수는 평균 5.5명으로 시지역은 8.2명, 군지역은 3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지도사 수도 김해시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군지역 중에서는 함안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수는 평균 1.9명으로 시지역은 3.0명이고, 군지역은 1.6명이며, 시지역 중에서는 김해시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군지역 중에서는 창녕군과 하동군이 각 4명으로 가장 많음

(단위: 명)

그림 3 별도사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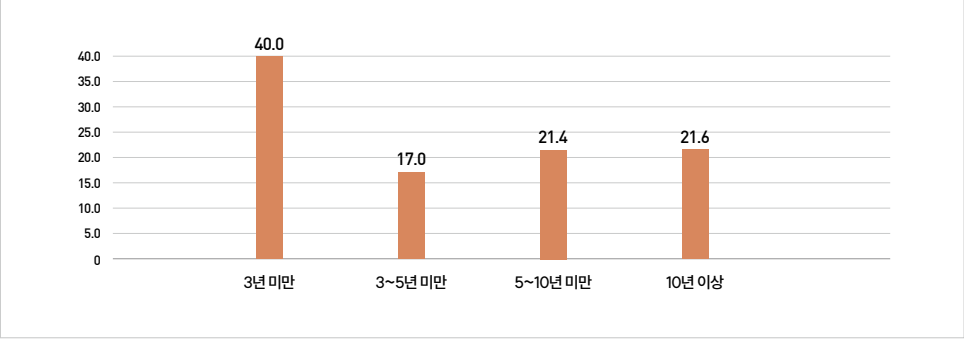
주: 사천, 양산, 의령, 고성, 함양, 거창, 합천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지 않음

근무기간 별 종사자 분포

- 시군 가족센터 근무기간별 종사자 수는 3년 미만 종사자가 평균 7.7명으로 전체 직원의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10년 이상 근무자가 21.6%, 5~10년 미만이 21.4%, 3~5년 미만이 17.0%로 나타나 3~5년차 비율이 가장 낮음

(단위: %)

그림 4 근무기간별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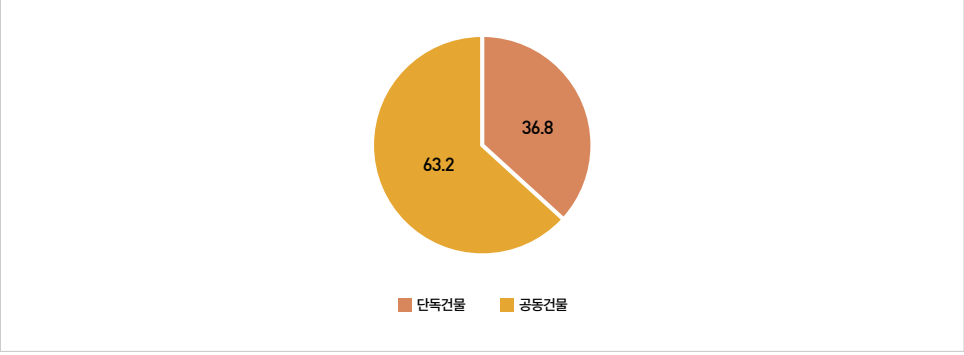


시군 가족센터 공간사용 현황

- 시군 가족센터의 공간사용과 관련하여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19개 기관 중 7개 기관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고, 12개 기관이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가족센터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중 10개 기관은 여성가족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해 있으며, 이중 생활SOC 복합센터형 가족센터는 산청군가족센터, 거제시가족센터, 고성군가족센터가 있음

그림 5 가족센터 공간사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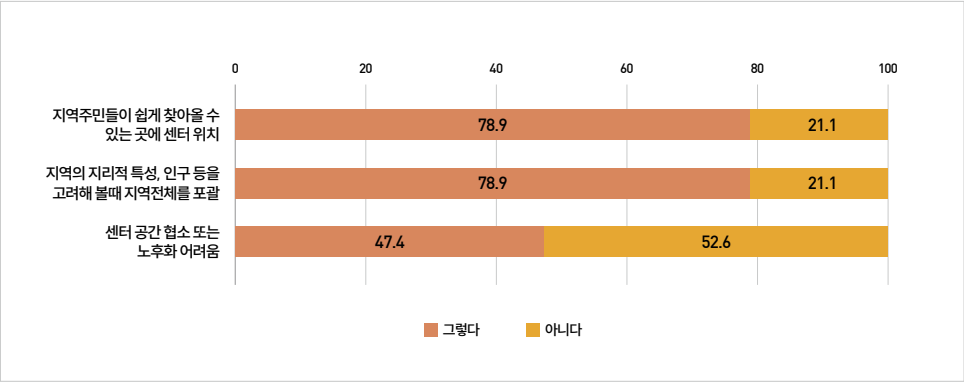


시군 가족센터 물리적 환경 인식

- 가족센터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센터가 위치'하는 경우는 19개 센터 중 15개 센터로 비교적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4개 센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센터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전체를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에 19개 센터 중 15개 센터가 지리 및 인구 포괄성이 낮다고 응답함
- 가족센터의 '공간협소 또는 노후화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19개 센터 중 9개 센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시군 가족센터 물리적 환경

(단위: %)



02. 시군 가족센터 기본사업 추진 현황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사업영역 및 기본사업

-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따르면 가족센터의 사업영역은 가족관계, 가족돌봄(온가족보듬),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4가지이며, 각 사업영역별로 세부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본사업 현황

사업영역	기본사업	사업영역	기본사업
(1)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 (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가족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2) 가족돌봄 (온가족보듬)	가족상담(일반상담, 집단상담)
	부부역할지원 (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3)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4)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공동육아나눔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기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취업지원(신규, 특화 직업훈련)		가족사랑의 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기초학습지원, 진로설계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다(多)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출처: 여성가족부(2025). 가족사업안내(Ⅰ). p.95.
※별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중 우선적으로 시행, 기본사업 외에 건가 또는 다가사업, 지역특성화사업 등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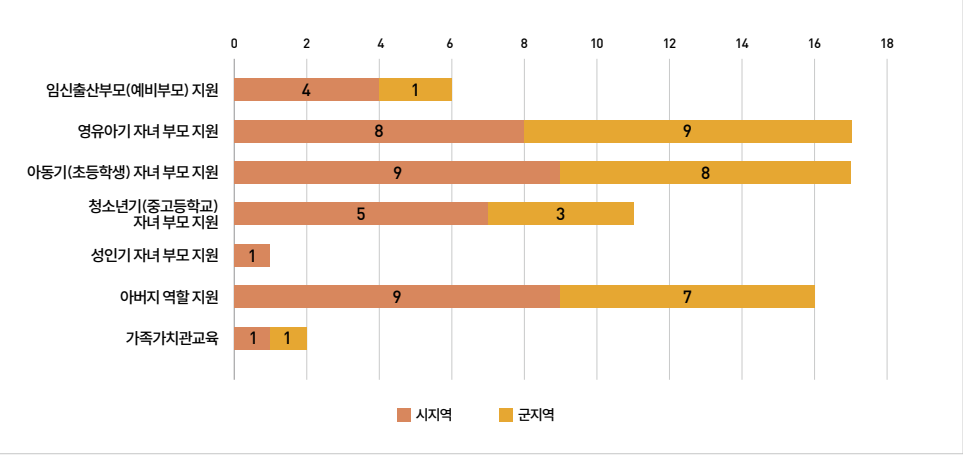
(1) 가족관계 사업영역 추진 현황

시군 가족센터의 부모역할 지원사업 추진 현황

- 가족관계 사업영역 중 부모역할 지원사업으로 '영유아자녀 부모지원', '아동자녀(초등) 부모지원' 사업을 19개 센터 중 17개 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아버지역할 지원사업'이 16개 센터가 운영하였음
- 이에 비해 '청소년자녀(중고등) 부모지원' 7개 센터 운영, '임신출산부모(예비부모) 지원'이 5개 센터가 운영하였으며, 주로 시지역에서 운영하였음. 그 밖에도 '성인기자녀 부모지원(1개 센터 운영)'과 '가족가치관교육(2개센터 운영)'은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부모역할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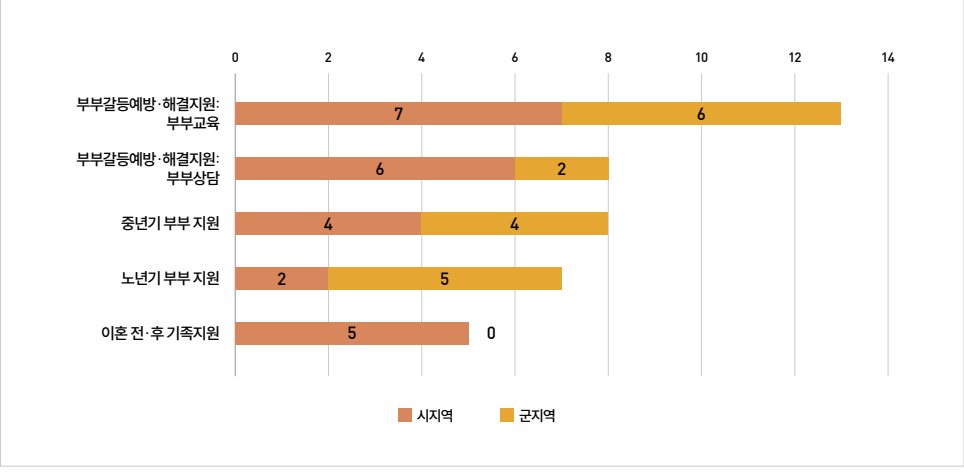


시·군 가족센터 부부역할 지원사업 추진 현황

- 가족센터 부부역할 지원사업은 '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부부교육'이 13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지역과 군지역 비율이 유사하며, 다음으로 '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부부상담'이 8개 센터에서 운영하였고, 시지역이 6개 센터, 군지역이 2개 센터에서 운영하여 차이를 보임
- '중년기 부부지원'은 시지역 4개 센터, 군지역 4개 센터로 유사하며, '노년기 부부지원'은 군지역이 5개 센터로 시지역 2개 센터보다 많아 지역 인구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혼 전후 가족지원'은 시지역 5개 센터만이 운영하였음

그림 8 부부역할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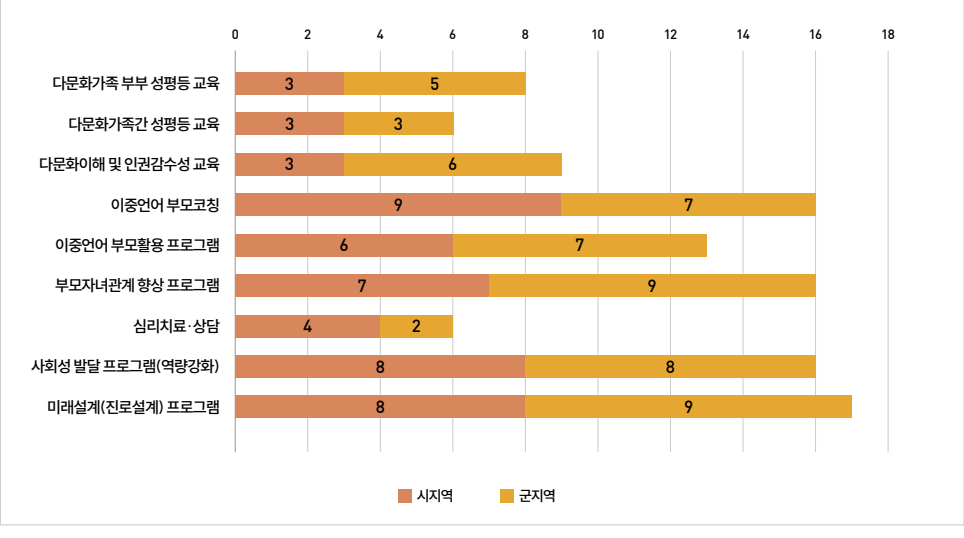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각 센터에서 가장 많이 추진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자녀 미래설계(진로) 프로그램'으로 17개 센터에서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프로그램'과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관계향상프로그램'이 16개 센터에서 운영하였음
- 각 센터에서 비교적 사업 추진이 낮은 것은 '다문화이해 및 인권감수성교육' 9개 센터, '다문화가족 부부성평등교육' 8개 센터, '다문화가족간 성평등교육'과 '심리치료·상담'이 각각 6개 센터로 나타남

그림 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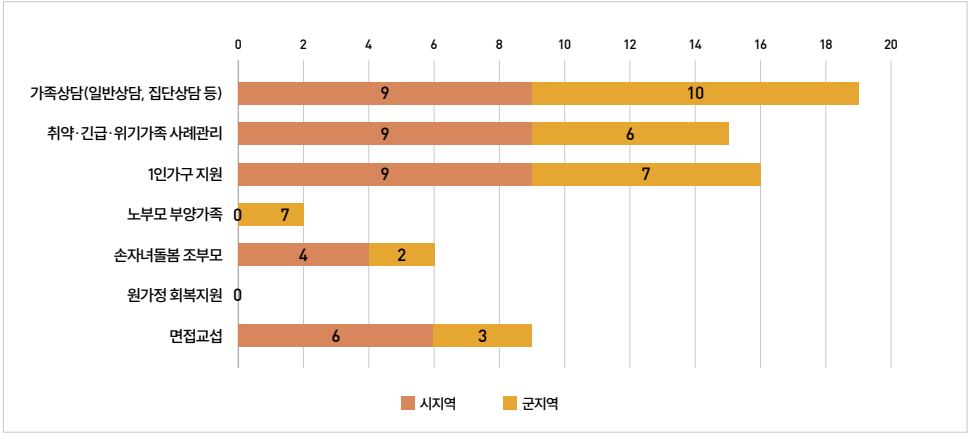
(2) 온가족보듬 사업영역 추진 현황

시·군 가족센터 온가족보듬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온가족보듬 지원사업 중 '가족상담(일반상담, 집단상담)'은 경남의 19개 센터에서 모두 운영되었고, 다음으로 '1인가구 지원'이 16개 센터에서 운영되며, 시지역 9개 센터 모두가 운영하였음. '취약·긴급·위기가족 사례관리'는 15개 센터에서 운영되었고, 시지역은 9개 센터 모두 운영하였고, 군지역은 6개 센터가 운영함
- 이에 비해 '면접교섭권 지원'은 9개 센터에서 운영하였고, 이중 6개 센터가 시지역센터이고, '노부모부양가족(1개 센터)', '손자녀돌봄 조부모지원(6개 센터)' 운영 센터는 더 작았으며, '원가족 회복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온가족돌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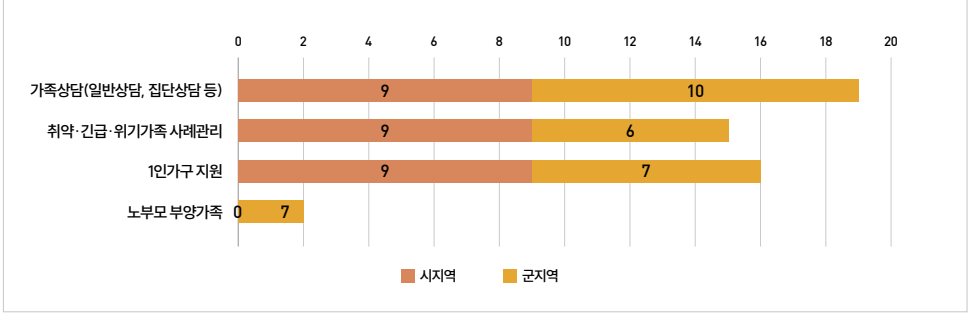
(3) 가족생활지원 사업영역 추진 현황

시·군 가족센터 가족생활 지원사업 추진 현황

- 가족생활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 운영률이 높은 편인데,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사업은 19개 센터 중 16개 센터가 운영하였고,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이 15개 센터에서 운영하였음
- 이에 비해 비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은 11개 센터가 운영하였는데, 시지역 5개 센터, 군지역 6개 센터가 운영하였음

그림 11 가족생활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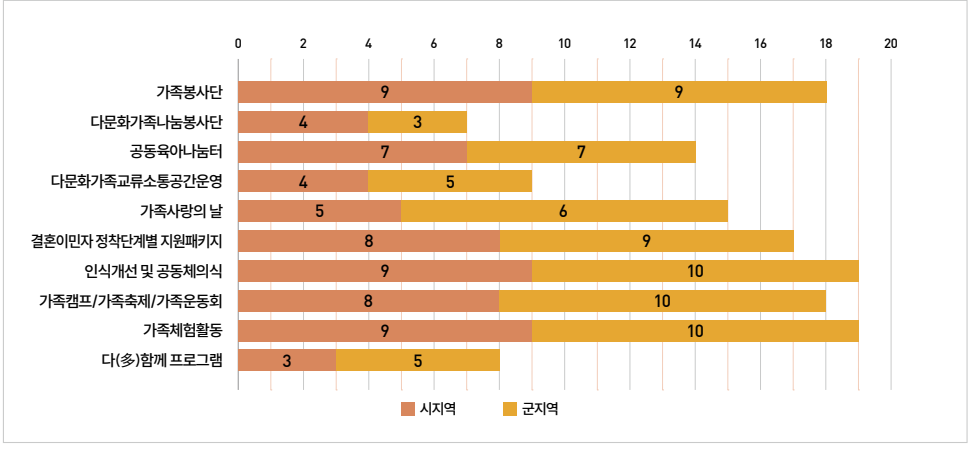
(4)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영역 추진 현황

시·군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사업 중 가족체험활동,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지원은 19개 센터 모두가 운영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봉사단과 가족캠프 및 축제는 18개 센터가 운영하였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17개 센터, 가족사랑의 날 15개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개 센터 순으로 운영함
-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운영(14개 센터), 다(多)함께 프로그램(8개 센터),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7개 센터) 사업은 비교적 운영률이 낮은 편임

그림 12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03. 시군 가족센터 사업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

구분	센터 및 기본사업 운영 현황		정책 시사점
가족센터 인력 현황	• 종사자 중 정규직 81.0%, 비정규직이 19.0%로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높아 종사자 간 처우 격차 발생 문제 해결 필요 • 가족센터 이주배경 종사자가 평균 2.4명으로 시지역 3.4명, 군지역 1.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3.4%로 확대 필요 • 3년간 정규직 퇴사 인원 평균 4명, 10년 이상 종사자 21.6%, 3년 미만 종사자가 전체 40.0%로 장기근속 비율 낮음		• 정규직 고용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가족센터 물리적 환경	• 지역주민의 지리적 접근성은 19개 센터 중 15개 센터가 긍정적 • 공간 협소, 노후화 문제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센터가 9개 센터		• 공간 협소, 노후화 문제 해소 위한 리모델링 지원
기본사업 영역별 추진 현황	가족관계 사업	• 성인기자녀 부모지원, 예비부모지원 사업 부족 • 이혼전후 가족지원사업 운영부족. 시지역과 군지역 격차 큼 • 다문화가족 성평등교육, 심리치료 지원 낮음	• 가족생애주기별 다양한가족에 대한 교육·지원강화 • 다문화가족 성평등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강화 • 군지역 사례관리 확충 •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필요
	온가족 보듬사업	• 노부모부양가족, 손자녀돌봄가족지원 부족 • 군지역 취약가족 사례관리 부족	
	가족생활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중심 사업 비중이 과다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부족	
	지역공동체 사업	• 가족체험활동, 가족축제 등 일회성 사업 과다	